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三毒 이겨낸 이가 큰 사람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대인의 상입니까?”  
스님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나서 차수하고 모습을 단정히 했다.

問 如何是大人相 師以手摸面又手斂容

세상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대인의 상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보통 사람 같으면 키가 9자나 되고 발이 코끼리 발과 같고, 몸집이 크고 황금색이 나며 얼굴이 준수한 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몸이 크다고 결코 큰 사람일 수는 없다. 심량이 크고 하는 일이 크고 용심(用心)이 크다면 가히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사 이런 사람이라 해도 결코 큰 사람일 수는 없다.

진정 큰 사람은 욕심을 이겨낸 사람이고, 분노를 이겨낸 사람이고, 어리석음을 벗어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도 얻었다는 상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인이다.

조주 스님은 손으로 쓱 스스로의 얼굴을 만지고 차수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인의 상을 보였다. 선사는 겸손하다. 그러나 자기를 보여야 할 때라면 당당하게 보인다. 주저함이 없다. 조주 스님은 지금, “대인은 따로 없어. 누구든지 대인이야.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면 그가 바로 대인이야”라는 것을 직접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무위(無爲)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유위(有爲)이다.”

問 如何是無爲 師云 者箇是有爲

무위(無爲)라는 말은 함이 없는 것이다. 그 어떤 인위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무위이다.

부처님의 행동이 무위이다. 인위적인 행동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거짓이 들어있고 추가하고 과장하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 있는 것 그대로 보이는 것이 무위이다. 아울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위이다. 무엇을 해도 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무위이다. 좋은 일을 해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장관이 되어도 되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되어도 되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또 분노가 없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하며, 미움도 없어야 한다. 누가 알아준다고 해도 좋아함이 없어야 하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다. 만약 좋은 일을 하고도 했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유위(有爲)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돌이나 나무처럼 정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 하고 다 보고 다 행동할 수 있지만, 마음은 해도 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한 것에 대하여 이리저리러니 한 생각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아예 무위라는 말도 없는 것이 무위이다. 무위가 생각났

다면 그 자체가 벌써 유위이다.

학승이 물었다.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울안에 소를 잃어버린 거야.”

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欄中失卻牛

조주 스님은 여기서 99%의 답이 들어있는 선구(禪句)를 보여주었다. 마치 방문이 유리로 되어있는 것과 같아서 안에 것이 다 보인다. 마지막 1%는 독자들이 알아보기 바란다. 본 답자가 그것마저 설명해버리면 선(禪)이 싱거워져버린다. 다만 이 화두에 대한 평을 하자면, “진흙소가 바다 밑에서 달리고, 철로 된 뱀이 금강안(金剛眼)을 뚫고 들어가니, 꽃을 들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겠겠다.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울안에 소를 잃어버린 거야”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마지막 희망을 벗고 여기서 조사의 뜻을 바로 보기 바란다. 바로 보고 아는 것이 있거든 얼른 선사를 찾아가 바로 안 것인가 점검해 보라.

점검해서 그대의 깨침이 바른 깨침이라고 증명을 받으면 그대는 평생 할 일을 마친 것이고 일없는 참사람이 된 것이다. 이후부터는 동(東)으로 서(西)로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도착하여 쉬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면 된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관무량수경

## 정토 왕생법 설한 경전

《관무량수경》은 서방극락의 정토와 아미타불을 관상(觀想)하는 방법과 그 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을 설한 경전이다. 《무량수경》(아미타경)과 함께 정토 삼부경의 하나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 경전의 성립에 대해서는 업처관(業處觀)을 근거로 한 인도 성립설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성립설, 중국 성립설, 단계적인 성립설, 여러 경전의 내용의 복합설 등의 견해가 다양하다. 본 경전에는 선관(禪觀)이 중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선관 가운데서 업처(業處)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업처는 범어 karma - sthāna의 번역어로서 선정이 지주(止住)하는 장소, 곧 선정의 토대로서 선정을 닦을 때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곧 선정을 수습하여 성취할 때에 자기에게 맞는 관상의 대상이나 방법을 선택하여 그 선정이 각각 특수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바로 그 관상의 방법과 대상을 말한다. 곧 일체처에 두루 섭없이 관찰하기 때문에 변처(遍處)라 말한다. 여기에서 섭없이 두루 관찰한다는 관법이 편처의 특징이다. 가령 십편처(十遍處) 가운데

취함으로서 유리로 이루어진 땅에 대한 관상이 눈을 감긴 뜨겁게 계속되면 분명하게 극락의 정토를 관상할 수 있게 된다. (4)보수관(寶樹觀)은 극락정토에 있는 불가사의한 나무를 관상한다. (5)보지관(寶池觀)은 극락정토의 연못의 여덟 가지를 관상한다. (6)보루관(寶樓觀)은 극락정토의 오백역의 건물을 관상한다. (7)화좌관(華座觀)은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이 앉아 있는 연화대를 관상한다. (8)상상관(像想觀)은 불상을 보고 아미타불의 모습을 관상한다. (9)진신관(眞身觀)은 아미타불의 참된 모습을 관상하는 데 이 진신관을 성취하면 제불을 볼 수 있게 된다. (10)관음관(觀音觀)과 (11)세지관(勢至觀)은 각각 아미타불을 따르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관상한다. (12)보관(普觀)은 정토의 불·보살·국토를 빠짐없이 관상한다. (13)잡상관(雜想觀)은 앞에서와 같은 진불과 진보살을 관상할 수 없는 사람이 장육존의 아미타불상을 보고 여러 가지 대신·소신·진불·화불 등을 다 관상한다. (14)상배관(上輩觀) (15)중배관(中輩觀), (16)하배관(下輩觀) 등 삼배관은 중생이 각각의 능력과 성질의 우열에 따라 각기 근기에 적당한 수행으로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관상한다.

위와 같은 관상법은 업처의 내용으로서 특히 부정관법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곧 《해탈도론》에서 말하는 열 가지 일체입(一切入)·열 가지 부정관·열 가지 염(念)·네 가지 무량심·사대관(四大觀)·식부정관(食不淨觀)·무소유처관(無所有處)·비비상처(非非想處) 등 38행처(行處)를 설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토삼부경 중 하나로 선관이 주요내용  
업처관(業處觀)을 근거로 16관상법 제시  
무상·무아 관찰하는 ‘선비요법경’과 밀접  
인도·중앙아시아·중국 등 성립설 다양

청변처(靑遍處)의 경우에는 눈앞에 작은 청색을 상징하여 관찰하고 그 푸르다는 관상을 확대하여 세계 전체가 모두 청색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간주한다. 변처의 둘째 특징은 이러한 관상은 실관(實觀)이 아니라 가관(假觀)으로서 부정관·사무량심·십편처 등의 업처는 승해작의(勝解作意 : adhimukti - manaskāra)에 의한 관법, 곧 관상의 대상을 자유로이 증대 내지는 변화시키는 관법이다. 가장 보편적인 변처에는 지·수·화·풍·정·황·적·백·공·식 등 열 가지가 있다. 앞의 지·수·화·풍·정·황·적·백 등 여덟은 청정한 해탈과 같고, 뒤의 공·식의 둘은 청정한 무색으로서 지·수·화·풍 등 사운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업처관을 근거로 한 관상법에 해당하는 《관무량수경》의 16관상법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일상관(日想觀)은 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여 해가 하늘에 걸려 있는 북과 같이 둥근 모습으로 눈을 감긴 뜨겁게 될 때까지 관상한다. (2)수상관(水想觀)은 청정한 물을 보고 그 영상이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다고 관상한다. 나아가 얼음의 투명한 모습을 생각하는 방식을 행하고, 청옥과 같은 유리를 관상하여 그것이 성취되면 극락정토의 대지가 유리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음을 관상한다. (3)지상관(地想觀)은 앞의 수상관을 성

이러한 극락정토의 낱낱의 모습에 마음을 집중하여 무한대로 확장하는 관상은, 18종의 부정관이 항상 일부를 대상으로 선택해 이것을 차례로 번쳐로 삼아 관상하는 《선비요법경》의 내용과도 밀접하다. 곧 살아 있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단계를 거쳐서 열 가지 색부정관(色不淨觀)에 이르고, 수식관(數息觀)을 거처, 사대관(四大觀)을 지나 수행자의 몸은 백옥과 같이 명징하다고 간주하며, 다시 자기의 몸이 검은 모습으로 변하는 환각을 극복하고, 점차 수많은 연꽃잎의 금강대좌에 걸가부좌하고 있는 금빛의 불상을 보고서 자신의 몸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화불(化佛)에 휩싸여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지만 그 경계상도 곧 가관임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체험을 반복하면서 부정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신체와 아상(我相)의 존재가 없음을 자각하게 되고, 신체의 고·공·무상·무아를 관찰하여 모두 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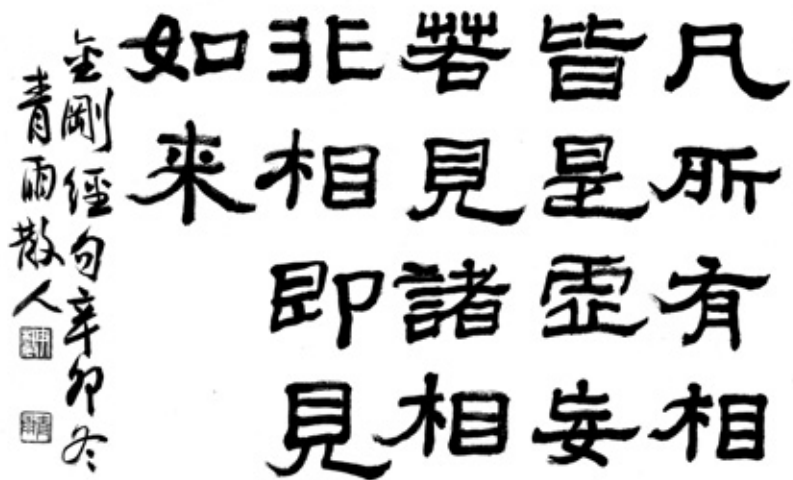
이렇게 사유하는 가운데 신(身)을 관하면서도 몸을 보지 않게 되고, 아(我)를 관하면서도 아(我)를 보지 않게 되며, 심(心)을 관하면서도 심(心)을 보지 않게 될 때 홀연히 산하대지의 일체가 무(無)임을 터득한다.

### 운상민의 서화산책 금강경

####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범소유상 개시허망 약 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형상을 형상이 아닌 줄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 금강경

凡: 무릇 범  
皆: 다 개  
虛: 빌 허  
諸: 모두 제  
即: 곧 즉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후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 사주프로그램 CD

# 명리보감

## 命理寶鑑

###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 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자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 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 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 명리보감 | 검색 | 등 검색하세요. [www.goodcycle.com](http://www.goodcycle.com)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 031)493-3581

# 취 축 임

## 한국불교태고종 제13대 중앙총회의장

### 도산 스님 (수정사 주지)

## 한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재형